

덕진공원,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 만든다

전주시, 열린광장 조성·기반시설 정비 등 추진…수변문화 향유 도심여가형·체류형 관광명소로 탈바꿈

전주 도심 속 대표 휴식처인 덕진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24시간 수변문화를 향유하며 즐길 수 있는 도심 여가형·체류형 관광명소로 탈바꿈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중 △열린광장 조성 △창포원 물맞이소 조성 △남생이 서식지 복원 △아간경관조명 강화 △여름철 경관 개선 등 5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까지 △산책로 재정비 및 맨발길 조성을 추진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6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올해 32억 원을 투입해 덕진공원 입구에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과 원형광장을 조성하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과거 덕진공원 입구부(연지문·풍월정)와 연화교 사이에 위치했던 높은 녹지 문턱을 낮추고, 노후 시설물 철거 및 군집된 나무 재배치 등 어디에서도 호수와 연못이 보일 수 있도록 개방적인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원형광장의 경우 우리 선조들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별자리 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콘셉트로 조성되며, 아간에도 은하수처럼 은은하게 밝혀줄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안전한 산책길



전주 도심 속 대표 휴식처인 덕진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24시간 수변문화를 향유하며 즐길 수 있는 도심여가형·체류형 관광명소로 탈바꿈된다. 사진은 열린광장 조감도.

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광장과 연계해 호수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즐길 수 있도록 계단형 수변스탠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꽃군락이 있는 부분은 이미 수중 데크길(연지교)이 연장돼 볼거리를 맞아 덕진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시는 연계성 없이 산재돼있던 거대한 비석과 동상 등을 선별해 이전하고, 노후 휴게시설물을 교체함으로써 공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쾌적하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수변의 노후 산책로 800m 구간을 재정비해 휠체어와 유아

차 사용자 등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코르크 맨발길도 일부 구간에 도입된다.

여기에 시는 덕진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창포원'을 물맞이소로 재정비해 과거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창포군락 공간을 조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한국남생이보호협회와 협업해 '남생이 서식지 조성'과 '외래종 거북 퇴치작업'을 진행하

고 있으며, 여름철에 덕진공원의 대표 자원이 연꽃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호수변 수국길과 배롱나무길, 음악분수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작업에 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덕진공원을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연화정 재건축 △전통담장길 조성 △연지교 재가설 △연화정 및 벽진폭포 미디어 콘텐츠 구축 등 관광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함께 덕진공원이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아경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측 전통담장길 LED 바닥조명 200여 개 △동측 메타세쿼이아 숲 레이저를 활용한 반딧불 조명 6개 △수중 데크길(연지교) 경관등 531개 △바닥등 263개 △노후 공익등 교체 및 조도개선 등 아간경관조명 설치도 완료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덕진공원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이자, 전주한옥마을 다음으로 많이 찾는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므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다소 정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이 급변 열린광장 조성과 다양한 기반시설 개선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변화되길 기대하고,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 재탄생

전주시새활용센터, 플라스틱 문제 해결 다양한 시각 경험 전시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에서는 오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활용한 기획전시 '플라스틱 정글탐험대·장난감의 역습'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환경예술단체인 피스오브피스가 기획한 프로젝트로,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어떻게 예술적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 결과물이자 장난감의 구조와 재료를 새롭게 해석한 창의적인 작품들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인 △돌연변이 워크북(컬러링북) △장난감 셀프 분해 워크숍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하여 총 3번의 특별 관람일을 준비했다.

특히 '지구의 날'과 '환경의 날'을 기념한 특별 관람일인 오는 26일과 6월 7일에는 각각 특별 프로그램인 △돌연변이 워크숍 △새활용 시민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들이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전시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특별 관람일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일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준비 착착

내달 9~13일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 정원산업 관련 업체와 전문 정원작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을 주제로 △정원 산업전 △정원 전시 △정원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정원산업전에는 식물·재료·도구·장비·예술·소품 등 다양한 소재 업체가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고, 전문·시민작가 5개 팀이 조성하는 아름다운 창의적인 정원도 박람회장 곳곳에 전시된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는 △나니아 꼬마정원사, 정원사 인생샷, 정원도구 사용법 △천연 페비는 어떻게? △별과 나비가 모이는 정원 조성 등 정원 생활에 도움을 주고 교육과 연계한 정원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뉴욕식물원 가드너인 세이지 키팅과 함께하는 '해피가드닝'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정원사진전과 박람회 사진작가 촬영대회 △전주미래유산 37 '광명대장간' 장인의 전통 도구 만드는 시연 등이 준비된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는 전주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개인 정원의 사진을 전시하고, 전국에서 온 사진작가들이 박람회 이모저모 모습을 촬영한다. 사진작가들은 현장에서 방문객에게 사진을 촬영해 주고 인화해 주는 이벤트도 준비한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원 도구에 진심인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는 '우리집 정원 스토리 토크쇼'도 운영되고, 다양한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텝프루어 △정원소재 경매 △나만의 미니꽃다발 △허브차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는 처음 시도되는 B2C(기업-소비자), B2G(기업-지자체) 거래의 장도 마련되며, 지자체 관계자 초청 산업전 현장투어도 열린다.

이를 위해 시와 박람회 조직위는 참여업체를 돌아보면서 품목 등을 설명해 주고 복합문화공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상담창구를 개설·지원한다. /권희성 기자



‘열정아구’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덕진구 유아2동주민센터(동장 민웅기)는 15일, 유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선) 위원들과 함께 착한가게에 동참한 '열정아구(대표 진영선)'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식을 진행하고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열정아구 진영선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착한가게 캠페인을 통해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실천 기업에 감사장 전달

전주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는 15일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6개 기업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기업은 △KTX&G 전북본부 △전북도시가스(주) △(주)비스 전주공장 △HS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 △(주)신성건설 △(유)마한 등 6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수년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저소득층 물품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주시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해 왔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전주시 사회복지 지원에 일정 금액 이상을 지정 기탁하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스튜디오 신축 계획 등 기반시설 확충 방향 등을 파악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체육·문화기반시설 사업 현장방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전문미)는 15일 체육·문화 기반시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주 여의동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건립 개요와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드론스포츠복합센터는 드론축구 중

주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드론축구 월드컵을 대비해 전용 경기장과 체험 공간 등 복합시설을 조성 중이다.

또 의원들은 여의동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현장과 장동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요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했다.

이어진 전주영화촬영소 방문에서는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